

#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영국혁명

The Scottish Presbyterianism and the English Revolution

국민성악파를 중심으로

이경아

- I. 머리말
  - II. 복합왕국(multiple kingdom)의 제문제
  - III. 국민성악파의 성립
  - IV. 국민성악파와 영국혁명
  - V. 맺음말
- 참고문헌



이경아,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1993). 현재 신일전문대학에서 역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대현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 **Abstract**

The English Revolution of the mid-seventeenth century - that complex period which involved the downfall of Charles I's government, civil wars, social upheaval, and the creation of a republic - has long attracted the attention of historians, and the available literature on the subject is now formidably large and indigestible. But most historians did not consider their subjects in the British dimension in English context.

Recently, however some historians have begun to see in their subjects in the relations of the multiple kingdoms. In particular, Conard Russell and John Morill have stressed the English civil war was one of the British crises and it ought to be studied in the British context.

In earlier studies,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of 1638 has been considered as a simple relation to a series of innovation of Arminianism or Catholicism under the reign of Charles I as the English Revolution has been understood as an solely English problem.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ers and the English Revolution. The main questions examined here are : What led the Scots to make the National Covenant of 1638? How the Covenanters could prepare and resist the King? Why did they intervene in the English affairs and What were their influences

upon the English Revolution?

Major observations derived from the above investigation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After the union of the Crown in 1603 that the Scots began to feel a sense of inferiority in the size of land, population and wealth. With more contact with English counterparts, all Scottish estates could not help feeling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In particular the Revocation Act of 1633 made laymen, especially noble men bitterly resentful.

Under such circumstances Charles I was openly preparing the New Prayer Book, ignoring wide opposition. On the Sunday morning of 23 July 1637 when the new service book was read in St. Giles in Edinburgh, one woman shouted and threw the stools. After that riot, many petitioners and letters were presented to the Privy Council.

When the Scots had realized that formal petitions from the elite with supplications were of no use for eight months after the Prayer Book Riots at St. Giles 1637, it was agreed that a public movement was the best way to change Caroline religious policy. By the end of 1637, the Scottish Privy Council was replaced by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The Scottish Nationalism and protestantism, therefore, were combined in resistance.

Charles I and the Covenanters began to prepare for military operations. On 9 May 1639, Alexander Leslie, a veteran of the Thirty Years' War, was appointed commander by the Scots. Matters

did not go smoothly for Charles I. Despite the money to pay a regular force, he did not summon the Parliament. So the Scottish army won the Charles I's with ease.

The Scottish success had a powerful influences upon England and Ireland. It was the Scots who brought the Long Parliament into being. The Covenanters' effect on Ireland was the Irish Rebellion of 1641.

It was the Scottish ambition to export Presbyterianism that made the Covenanters intervene in the English affairs. The Scots supported the king or the Parliament which could accept their ambition.

In breaking out of the English Revolution and its early progress the Covenanters supported the Parliament. 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 were written and approved by both sides.

After the New Model Army, which was mainly constituted of the Independents led by Oliver Cromwell, defeated the king, the Presbyterian settlement in England seemed impossible. So the opinion in Scotland was steadily moving to the king's favour and the Scots supported the king.

The first sign that Charles I had succeeded in allying presbyterians with royalists to start a second civil war came from Wales. Oliver Cromwell was ordered to suppress an insurrection. At that time, Scotland was hopelessly divided. The Engagers were mainly the Scottish nobility, and those dependent upon them, and were bitterly denounced at the ministers for taking up arms on

behalf of an uncovenanted king. Consequently the well-trained army under Leslie was not available to Hamilton, who had preformed to lead recruits against the veterans of the New Model Army, when he crossed the border in July 1648.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royalist efforts were ill-concerted and their risings were subdued piecemeal.

In short, the Scottish ambition to export presbyterianism seem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breaking out of the English Revolution and its progress. So it must be considered that the English Revolu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in English but British dimension.

## I. 머리말

역사 연구에 있어서 영국혁명(English Revolution) 만큼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온 분야는 드물 것 같다. 영국<sup>1)</sup>에서 혁명이 발발한 1642년 이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해석들은 영국혁명이 반란인가, 부르조아 혁명인가, 아니면 청교도 혁명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왔다.<sup>2)</sup>

한편 최근의 영국혁명 연구는 수정주의 해석(Revisionist Interpretation)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정주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는 쾨니스버그(H. G. Könisberger)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영국의 정치적 변동은 국내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간여’(outside intervention)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sup>3)</sup> 쾨니스버그의 외세간여설은 혁명 발발 이전에 이미 의회가 국왕에게 도전하고 있었다는 종래의 설명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당시 외세간여 문제에 있어서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복합왕국(multiple kingdoms)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합왕국은 1603년에 엘리자베드 I 세(Elizabeth I)가 후사없이 죽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James VI)가 영국왕 제임스 I 세로 즉위함으로써 나타난 것인데, 한 명의 국왕이 하나의 식민지와 두 개의 왕국을 통치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전영국적 상황(British context) 또는 복합왕국의 문제에

1) 본 논문에서 영국은 1707년 영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 되기 이전의 잉글랜드(England)를 칭하는 것이다.

2) 영국혁명에 관한 해석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토리(Tory)사관(1702-1848) ②휘그(Whig)사관(1848-1940년대) ③사회·경제사관(1940년대) ④주도사관 없는 논쟁시대(1950-1970) ⑤수정주의 해석(1975년 이후)이 바로 그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吳主煥, “英國革命史觀의 변천”, 吳主煥 外 共著, 『革命, 思想, 社會變動』, 大邱: 慶北大學校 出版部, 1992, pp. 3-47 참조.

3) Ibid., p. 38.

서 혁명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모릴(John Morrill), 러슬(Conard Russell) 등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sup>4)</sup> 특히 모릴은 혁명을 영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영연합왕국 내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sup>5)</sup> 다시 말하면 영국혁명은 영국이라는 단일차원에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라는 복합·다원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러슬은 한 왕국의 사건이 다른 두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른바 ‘연쇄충격효과’(billiard ball effect)론을 전개하면서 영국혁명의 원인을 설명했다.<sup>6)</sup>

그러면 영국을 혁명으로 몰고 간 상황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합왕국에서 제일 먼저 찰스 1세(Charles I)에게 대항한 스코틀랜드의 국민성약파(National Covenanter)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찰스 1세는 부왕 제임스 1세의 뜻을 받들어 스튜어트(Stuart) 절대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지배하고자 했다. 그러한 정책의 하나로 그는 소위 로드의 기도서(Laud's Liturgy)를 스코틀랜드에 강요하려고 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찰스 1세의 종교정책에 반발하여 1637년 7월 성 자일(St. Giles)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국민성약이 작성되고 스코틀랜드의 모든 계층 대부분이 이에 서명하였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진압하려 하였고 이에 국민성약파는 스코틀랜드의 행정, 군대조직을 정비하고 저항함에 따라 이른바 주교전쟁(Bishop's War)이 일어났다. 스코틀랜드 군대는 의회의 지원을 받지 못한 찰스 1세의 군대에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들은 찰스 1세와 휴전하면서 장로교를 영국에 전파하려고 노력하

---

4) John, Morrill,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1638-51*,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Conard, Russell, *The Causes of the English Civil War*,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5) Morrill,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p. 3.

6) Russell, *The Causes of the English Civil War*, p. 27.



였다.

또한 카톨릭을 신봉하고 있던 아일랜드인들은 스코틀랜드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1641년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여기에도 스코틀랜드인들이 개입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외부적 사태들이, 대립관계에 있던 찰스 1세와 영국 의회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영국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국왕이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자 의회와 국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국왕과 의회 양쪽과 계속 접촉하면서 영국의 내정에 간여하였다.

이렇게 국민성약과는 영국혁명의 발발과 경과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국혁명은 복합왕국의 각기 다른 종교적 차이에서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에서는 종교적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전영국적 상황은 도외시된 채 수행되었다. 따라서 전영국적 상황에서 종교가 영국혁명 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문제는 영국혁명 연구의 선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영국적 상황이란 관점에서 영국혁명을 연구한 논문은 국내에는 거의 없고 다만 홍치모 교수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sup>7)</sup> 그러므로 본 논문은 전영국적인 관점에서 국민성약과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영국혁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해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복합왕국의 문제를 검토하여 국민성약과가 형성된 배경을 구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국민성약의 내용과 국민성약에 서명한 사람들이 정치세력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국민성약과가 어떤 목적에서 영국혁명에 개입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7) 洪致模 “스코틀랜드와 清教徒革命 ; Trevor-Roper의 史觀과 그 批判”, 『신학지남』 제44권 1집, 1977.

-----,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91

끝으로 이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로 취급되는 시기는 복합왕국이 이루어진 1603년에서, 스코틀랜드의 지원을 받던 찰스 2세가 프랑스로 망명하게 되는 1651년까지가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II. 복합왕국(multiple kingdoms)의 제문제(諸問題)

1603년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는 엘리자베드의 뒤를 이어 제임스 1세로 영국 왕위에 올랐다.<sup>8)</sup> 이로써 오랫동안 대립과 반목을 일삼아 오던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왕실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왕실통합이 결코 완전한 정치적 통일을 뜻하지는 않았다. 양국의 통합은 앤(Anne) 여왕 치세인 1707년 통합법(Act of Union)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 때 양국의 의회가 합쳐짐으로써 ‘영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 생기게 된 것이다.

왕위에 즉위한 제임스 1세는 두 개의 이질적인 왕국을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켈트(Celt)족의 국가인 스코틀랜드와 앵글로색슨(Anglo-Saxon)족의 국가인 영국은 인종면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당시 의회, 추밀원(Privy Council) 그리고 종교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또 스코틀랜드의 의회는 권한이 축소되어 제임스 1세 치세하에서 단순한 등록법원(court of record)으로 전락해 있었지만 영국 의회는, 그와 유사한 신분제 의회가 쇠퇴해 가던 여타 유럽 국가와는 달리 그 중요성과 권위가 강화되었다. 따라

---

8)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드 1세가 1603년 후사없이 임종을 맞자 로버트 세실(Robert Cecil)은 제임스의 평화적인 왕위계승을 준비하였고 여왕 또한 후계자 지명을 요청 받았을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우리의 친척 이외에 누가 상속자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유언에 따라 헨리 VII의 외손(헨리 8세의 딸인 Margaret의 증손자)이었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한 것이다. G. Davies, *The Early Stuarts 1603-1660*, Oxford : Clarendon Press, 1959, p. 88.

서 영국의 경우 국왕이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다.<sup>9)</sup> 왕의 정책을 입안·수행하는 추밀원도 차이를 보였다. 영국의 추밀원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토론·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 반면 스코틀랜드의 추밀원은 런던에서 보내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수행하는 기구에 불과하였다.<sup>10)</sup>

영국의 교회는 헨리 8세(Henry VIII)가 수장법(Act of Supremacy, 1534)을 통과시켜 로마 카톨릭교회와 단절하였다. 그 이후 엘리자베드의 주도하에 국교회(Anglican Church)가 국내의 유일한 합법적인 교회로 확립되었다. 국교회는 교리상으로는 신교였지만 예배의식은 사치스럽고 다채로웠으며 기도서에는 카톨릭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국교회의 감독제도는 카톨릭의 조직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 녹스(John Knox)의 종교개혁 이후 장로교의 전통이 뿌리 박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름뿐인 의회와 달리 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sup>11)</sup>

이렇게 상이한 양국을 통치하자면 국왕은 탁월한 정치적 재능, 수완,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스튜어트 왕조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특히 제임스 1세를 계승한 찰스 1세는 더욱 그러했다.<sup>12)</sup> 국왕과 양국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갔다.

제임스 1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두 왕국을 새로운 법률로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영국 의회에서 행한 첫 번째 연설에서

9) Michael Gruber, *The English Revolution*, New York : Ardmore Press, 1967, p. 19.

10) David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1637-1644*, Newton Abbot : David & Charles, 1973, p. 30.

11) 장로교회의 조직은 당회(kirk session), 노회(presbytery) 그리고 총회(General Assembly)로 구성되어 있다. ①당회: 목사·장로들로 구성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 ②노회(장로회): 여러 개의 당회가 모여 하나의 노회를 형성. 주로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607년 이후 주교들이 회장(constant moderator)이 됨. 간통문제, 파문권에 대한 법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총회: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 W. R. Foster, *The Church before the Covenants*, Edinburgh : John Donald Press, 1975, pp. 66-105.

12) Stevenson, *Scottish Revolution*, pp. 23-24.

나타났다.

“... 신이 결합시킨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나는 남편이고 모든 섬들은 나의 아내이다. 나는 머리이며 섬들은 나의 몸이다. 나는 목자이며 모든 섬들은 양떼이다. 그러므로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교 왕인 내가 2명의 부인을 거느린 일부다처제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sup>13)</sup>

제임스 1세는 1606년 영국 의회에서 세 가지의 통합 유형을 제시했다. 첫째는 웨일즈(Wales) 지방을 통합한 유형이었다. 그것은 정복지의 법률, 의회, 교회, 추밀원 그리고 사법제도 등을 영국의 유형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sup>14)</sup> 둘째는 아일랜드와의 통합유형이었다. 아일랜드는 영국에 종속되어 식민지화되었으나 자치적인 추밀원, 의회, 법률제도를 가지고 있었다.<sup>15)</sup> 셋째 유형은 카스틸(Castile)과 아라곤(Aragon)의 통합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유형은 두 개의 추밀원, 의회, 법률제도, 교회를 가진 두 주권 국가의 왕실통합이었다.<sup>16)</sup>

당시 영국 의회는, 새로운 의원들이 국왕에 의해 선출되어 왕이 의회를 통제하면 영국 의회가 반대했던 많은 권력이 왕실로 넘어갈 수 있음을 두

---

13) W. Ferguson, *Scotland's Relation with England : a Survey to 1707*, En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77, p. 100.

14) 영국은 웨일즈 지방을 헨리 1세(Henry I) 때부터 정복하기 시작해 1284년 에드워드 1세(Edward I) 때 완전히 병합하였다.

15) Conard Russell, *The Causes of the English Civil War*, Oxford : Clarendon Press, 1990, p. 40. 아일랜드는 1801년 영국에 합병된 이후 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나 1949년 아일랜드공화국으로 완전히 독립하였고 오늘날에는 북 아일랜드만 영국에 속하게 되었다.

16) Bruce R. Galloway and Brian P. Levack, *Jacobean Union*, Edinburgh : Scottish Historical Society, 1985, p. 112. 1469년 아라곤왕 페르난도와 카스틸라여왕 이사벨과의 결혼으로 에스파니아 통일국가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려워했다.<sup>17)</sup> 그래서 영국 의회는 첫 번째 유형의 통합을 원했다.<sup>18)</sup> 한편 스코틀랜드는 아일랜드처럼 ‘총독이나 대리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식민지’(governed by a Viceroy or Deputy)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sup>19)</sup> 그래서 법률상의 통일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거절하였으며 독자적인 법률을 가진 주권국가로 남아 있기를 원했다.<sup>20)</sup>

이와같이 법률상의 통일이 실패하자 제임스 1세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 비록 시간이 훨씬 더 걸릴지라도 스코틀랜드 교회를 영국 교회로 바꾸려는 종교정책을 추구하였다. 국왕을 견제하는 스코틀랜드 교회와는 달리 영국 교회는 국왕에게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584년 이래 계속된 제임스 1세의 종교정책은, 1603년 이전에는 영국왕위에 오르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는 두 국가를 보다 완전하게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sup>21)</sup> 제임스 1세는 장로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감독제도를 도입시켜 이원체제를 구축시킨 후 차츰 장로교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는 1598년 장로교 총회에서 “나는 로마 교회나 영국 교회의 주교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sup>22)</sup> ‘자유 왕정의 진정한 법’(True Law of Free Monarchy)에서 그가 철저한 왕권신수설의 신봉자임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 제임스 1세는 먼저 장로교 지도자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스코틀랜드에 주교들의 수와 세력을 늘려 갔다. 이러한 의도에서 그는 1606년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을 포함한 8명의 목사를 런던으로 소환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총회에 대한 왕의 지상권을 인정받는 데 있었다.<sup>23)</sup>

17) Russell, *The Causes of the English Civil War*, p. 41.

18) Ferguson, *Scotland's Relations*, pp. 102-103.

19) Ibid., p. 103.

20) Dalloway and Leach, (ed.), *Jacobean Union*, p. 88.

21) Russell, *The Causes of the English Civil War*, p. 46.

22) David Calderwood,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vol. V(1845), (ed.), Thomas Thomsan, Edinburgh : Wodrow Society, 1842-1849, p. 64.

23) 총회는 매년 1번씩 소집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597-1618년에는 12번의 총회가

그 때 멜빌은 오히려 총회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권리와 1605년 아버딘(Aberdeen) 총회의 결과 총회억제법(Black Acts)으로 감금된 목사들의 무죄를 주장하였다.<sup>24)</sup> 그러나 제임스 1세가 멜빌을 런던탑에 투옥시키자 장로교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제임스 1세의 의도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그가 1612년 장로주의 교회를 법적으로 승인했던 국교승인법(Golden Acts)<sup>25)</sup>을 폐지함으로써 스코틀랜드 교회는 공식적으로 영국 교회와 같은 감독제 교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제임스 1세는 영국 교회와의 통일을 위해 1618년 성찬의식의 개혁, 교회절의 준수 등을 정한 퍼드시의 5개 신앙조항(Five Articles of Perth)<sup>26)</sup>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스코틀랜드인에게 감독제도의 도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따라서 제임스 1세는 기도서 개정 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5개 신앙조항을 실행에 옮겼다.<sup>27)</sup>

1625년 제임스 1세가 서거하자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복합왕국의 왕위에 올랐다. 그도 역시 부왕과 같은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나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에 비해 당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

열렸고 1618-38년 사이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는 국왕이 총회 소집권, 위원 선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618년 이후에는 자유총회가 열렸다. G. Donaldson, *Scottish Reforma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p. 130-148.

24) Bruce Galloway, *The union of England and Scotland 1603-1608*, Edinburgh: John Donald Press, 1986, p. 88.

25) 1589년 10월 - 1590년 5월, 찰스 1세는 덴마크 왕녀와의 결혼을 위해 스코틀랜드를 떠나면서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장로 교회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1592년 국교승인법을 제정하여 장로주의 제도를 법적으로 승인했다.

26) Calderwood,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vol. V, 1845, p. 332. 5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성찬을 받을 때는 앉지 않고 무릎을 꿇고 받을 것 ②긴급할 경우에는 사택에서의 성찬식을 인정할 것 ③세례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택에서 베풀 수 있도록 할 것 ④견신례(교구목사가 어린이들에게 교회에 관해서 문답의 과정을 거친 후 교가 축복을 기원하는 것)의 개혁 ⑤ Jesus Christ의 성일을 지킬 것.

27) G. Donaldson, *The Making of the Scottish Prayer Book of 1637*,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54, p. 39.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으며 거의 관심도 갖지 않았다.<sup>28)</sup> 즉 그는 영국에서 왕위에 오른 지 8년 후에야 스코틀랜드에 가서 대관식을 올릴 정도로 무심했다. 그러한 그의 무관심은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도 스코틀랜드를 ‘당신들의 국가’라고 칭한 예에서 잘 나타난다.<sup>29)</sup>

스코틀랜드 국민성에 대한 그의 관심부족은 1633년 홀리루드 궁전(Holyrood House)의 채플에서 거행된 그의 즉위식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 왕의 즉위식은 스콘(Scone) 또는 스테링(Stirling)에서 거행되었으나 찰스 1세는 다른 곳, 즉 아비(Abbey)교회에서 대관식을 가졌다.

“... Abbey교회는 즉위식을 위해 새로이 단장되었다. 교회 벽면에는 고금스러운 벽걸이용 장식물이 있었으며 그 안에는 십자가가 수놓여 있었다. 즉위식에 참석한 주교들은 그 십자가를 지날 때 무릎을 구부려 절을 하도록 했다. ...”<sup>30)</sup>

이는 스코틀랜드 왕으로서의 즉위식이 아니었다. 스코틀랜드의 전통, 관습, 가치 그리고 법률을 무시한 국교화된 즉위식이었다.<sup>31)</sup>

대관식을 거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간 찰스 1세는 캔터베리 대주교 로드(William Laud)를 동반하였다. 이는 기도서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녹스가 제네바에서 작성한 기도서(Book of Common Order)가 1562년 이래 기도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국교회를 확립하

28)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성격과 능력을 비교하여 영국혁명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로는 S. J. Houston, *James I*, London : Longman, 1973.

29) Maurice Lee, *The Road to Revolution : Scotland under Charles I 1625-37*, New York : University of Illinois, 1985, p. 9.

30) John Morrill, “The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ed.), John Morrill,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1638-51*,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pp. 2-3.

31) Ibid., p. 4.

기 위해서는 장로교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기도서의 개정이 절실했던 것이다.

부왕 제임스 1세는 영국 교회의 기도서에 따라 새로운 기도서를 작성하고자 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퍼드 신앙조례가 반대에 부딪히자 그것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기도서 개정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찰스 1세는 부왕의 신중함과 달리 왕위에 즉위하자 먼저 자기의 뜻에 아무런 이의없이 따르는 자만을 주교로 임명했다. 제임스 1세처럼 성 앤드류 대주교가 성도들과 협의한 후 선정한 3-4명의 주교 후보자 중에서 주교를 임명하던<sup>32)</sup> 것과는 달리 찰스 1세는 이러한 전례를 무시하고 임의로 임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sup>33)</sup>

1628년 로드가 런던 주교에 취임하자 또 다시 기도서 개정에 착수하였다. 로드는 영국 기도서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었고<sup>34)</sup> 국왕도 이에 동조하였다. 여기에 대해 스코틀랜드 주교들은 영국 기도서 도입을 반대했다. 과격파는 새로운 스코틀랜드 기도서를 작성할 것을 희망한 반면 온건파는 녹스가 제정한 종전의 기도서를 계속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35)</sup>

1633년 찰스 1세의 에딘버러 방문은 영국 기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로드는 스코틀랜드 주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32) Mathieson, *Politics and Religion*, 2 vols, Edinburgh : James Maclehose & Sons, 1902, vol. I(1902), p. 326.

33) D. Mathew, *Scotland Under Charles I*, London : Eyre & Spottiswoode, 1965. 이러한 주교 임명의 차이에 의해 스코틀랜드의 주교는 온건파와 과격파로 나뉘어진다. 제임스 1세가 임명한 주교들은 신·구제도의 절충을 원하는 온건파로서 1596년 Black 사건을 계기로 지배권을 확립하여 1637년까지 그 세력이 유지된다. 대표적인 주교로서 스포티우드(Spottiswood), 쿠퍼(William Cowper), 포베스(John Forbes)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찰스 1세에 의해 임명된 주교들은 캔터베리 대주교 로드의 심복이므로 캔터베리파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감독제도의 강화를 피하는 과격파이다.

34) Donaldson, *The Making of the Scottish Prayer Book of 1637*, p. 41.

35) Mathieson, *Politics and Religion*, vol. I, 1902, pp. 364-366.



종전의 주장을 버리고 가능한 한 영국 기도서와 유사한 별개의 기도서를 만들 것을 결심했다. 이에 새로운 교회 종전 및 헌법(Book of Canons and Constitutions)이 완성되어 1635년 5월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후 1636년에 인쇄되었다. 제1장은 교회의 수장인 국왕의 절대권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국왕은 이 절대권에 의하여 감독 교회의 기도서를 인가할 것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국왕의 절대권을 부인하고 기도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파문에 처한다고 명시했다.<sup>36)</sup> 또 감독제가 신수론을 명확히 주장하였으므로 온건파와 과격파 주교들 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더욱 커졌다. <sup>37)</sup> 온건파의 대부분이 찰스 1세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반면, 과격파는 전적으로 이것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들 과격파에 의해 작성된 기도서 초안이 1636년 4월 국왕에 의해 승인되고 뒤이어 1637년 4월 에딘버러에서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라는 이름으로 인쇄되었다. 이 기도서는 로드의 이름을 따서 로드의 기도서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그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거의 없었으며 기도서 작성자로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주교들이었다.<sup>38)</sup>

이 기도서가 반발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39)</sup> 첫째, 이 기도서는 카톨릭교리의 부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퍼드시의 5개 신앙조례의 실시가 카톨릭 도입의 의혹을 낳은 데다가 기도서의 공표를 계기로 그 의혹은 절정에 달했던 것이다. 둘째, 이 기도서가 표현방식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영국 기도서와 유사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인에게 내재해 있던 반영감정을 폭발시켰던 것이다. 셋째,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도서를 바꿀 때 교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기도서는 국왕의

36) J. K. Hewison, *The Covenanters, A History of the church of Scotland from the Reformation to the Revolution*, 2 vols. vol. I (1913), Glasgow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13, pp. 227-229.

37) Mathieson, vol. I (1902), p. 355.

38) Hewison, op. cit., vol. I (1913), p. 230.

39) Donaldson, *Scottish Prayer Book*, p. 60.

강제에 의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경제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임스 1세가 영국으로 떠난 후 스코틀랜드는 국왕 없는 왕국으로서 그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화폐가치를 영국의 1/12로 정했는데<sup>40)</sup>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부가 런던으로 몰릴 것임을 알려 주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스코틀랜드인들이 스코틀랜드보다 더 큰 왕국인 영국에 흡수됨으로써 독립성을 상실하여 억압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두려움이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엘리자베드 여왕의 지나친 전비와 경상비의 과다 지출로 왕실 재정이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에<sup>41)</sup> 제임스 1세가 영국 왕위에 즉위했을 때 인계 받은 왕실 재정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일찌기 스코틀랜드에서 왕실재정을 충실화하기 위해 1586년 교회 소유지를 몰수하여 왕령으로 병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합법(Annexation of the Temporalities of Benefices to the Crown)을 공포했으나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포기했었다.<sup>42)</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왕실재정 강화의 필요성에 직면한 찰스 1세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입안하였다. 먼저 1625년 즉위하면서 대부분의 교회재산이 귀족들의 수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 '증여재산 환수법'(Act of Revocation)을 제정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오랜 기간 계속 어린 국왕이 즉위하였다.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 1642 - 67)는 출생 6일만에 즉위하였고 제임스 6세(James VI)는 탄생하던 해(1567)에 모후로부터 양위(讓位)를 받아 국왕으로 즉위

40) Edward J. Cowan, "The Making of the National Covenant", (ed.), John Morrill,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p. 73.

41) 길현모, "초기 스튜어트 왕정의 재정적 파탄에 관한 고찰", 「김성근 박사 환갑기념 서양사 논총」, 서울 : 교육출판사, 1969, pp. 91-108.

42) J. Lane, *The Reign of King Covenant*, London, 1956, p. 30. 병합법은 또한 제임스가 추구했던 교회정책과도 모순된다. 감독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교 영지가 필요하였으므로 그는 곧 병합법을 철회하고 1606년 주교영지반환법(Act Anent the Restitution of the Estate of Bishops)을 제정하게 된다.

하였다.<sup>43)</sup> 찰스 1세는 150년만에 처음으로 성인으로서 왕위에 올랐다. 대관식에서 그가 성인으로서 즉위한 제임스 4세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sup>44)</sup>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어린 국왕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 왕실은 자체의 안정과 보존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에게 그 보상으로 토지를 대여해 주거나 하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20-25세가 되면 스코틀랜드의 국왕은 귀족들에게 수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제정해 두었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증여한 재산들을 다시 국왕의 관리하에 둘 수 있었다.<sup>45)</sup>

찰스 1세의 증여재산 환수법은 스코틀랜드의 관례로 보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법은 이전 국왕들의 것과는 구별되었다. 법의 적용 범위가 당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1540년 이후의 모든 증여재산을 환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재산을 하사 받지 못한 귀족은 거의 없었고 일부 귀족들은 증여재산 환수법에 의해 토지를 전부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찰스 1세의 정책에 대한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sup>46)</sup> 그러나 찰스 1세는 25세가 되기 한 달 전인 1625년 10월, 서둘러 이 법을 발표했기 때문에 환수 시 보상을 해 준다는 그의 정책을 정확히 알릴 수가 없었다.

귀족의 저항과 불복종에 직면하자 찰스 1세는 1626년에 2개의 법령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보완대책이 담겨져 있었다. 첫째, 환수 대상의 토지가 평신도에 한정되고 둘째, 환수시 보상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626년 8월까지 재산을 반환한 귀족은 아무도 없었다.

43) Michael Lynch, *Scotland*, London : Pimlico, 1991, p. 152. 초기 스튜어트왕들의 즉위시 나이는 다음과 같다. 제임스 2세(1437-60): 6살, 제임스 3세(1460-88): 9살, 제임스 4세(1488-1513): 15살, 제임스 5세(1513-1542): 1살, 찰스 1세(1625-49): 25살.

44) John Morrill, "The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p. 4.

45)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p. 35.

46) Ibid., pp. 35-36.

1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재산을 왕실에 반환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1626년 8월 22일 찰스 1세는 증여재산 보유자들에게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그들의 대표들이 런던에 파견되어 국왕과 협의한 결과 1627년 1월 17일 대주교 스포티우드(Spottiswood)와 대법관 헤이(Sir George Hay)를 의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4인의 귀족, 9인의 주교, 23인의 기사 및 젠트리, 10인의 도시대표로 이루어진 양도위원회(Commission for Surrenders of Superiority and Teinds)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1627년 여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첫째, 증여된 재산은 국왕에게 인도할 것 둘째,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보상으로서 국왕은 보상금을 지급할 것 셋째, 이 문제 및 1/10세의 산정과 왕실재산 매각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는 국왕이 발표하는 중재법령에 의해 최종적으로 조정·결정할 것. 증여재산 보유자들이 이와 같은 결정에 승복하고 1628년 왕실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및 경작하고 있는 모든 계층은 증여재산 환수법에 관한 국왕의 결정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마지못해 이러한 증여재산 환수법을 승인하고 토지의 소유권과 수취권을 동시에 포기하게 된 귀족들은 왕실에 대해 적의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불만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회의 법률심의 방법<sup>47)</sup>과 주교의 정치참여<sup>48)</sup>에 대한 불만이, 증여재산 환수법의 실행과 1637년 기도서의 제

---

47) 이 당시 스코틀랜드 의회의 특징은 심의방법의 위임제이다. 의회의 첫 회기에서 법률심의관(Lords of the Articles)이 선출되고 그들에 의해 심의된 법안을 일괄 상정하여 마지막 회기를 연다. 그 사이에 의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회합, 토의가 금지되므로 법률심의관의 선출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제임스 1세의 치세 초기에는 종교개혁 전과 같이 귀족이 주교의 대표를 뽑고 주교가 귀족의 대표를 선출하며 귀족과 주교 모두가 바론과 시민의 대표를 선출한다. 1621년 이후에는 법률심의관으로 선출된 8인의 귀족과 8인의 주교가 바론, 시민의 대표를 각기 8명씩 선출한다. 주교는 국왕에 의해 임명되고 법률심의관과 연결되므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의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R. S. Rait, *The Parliament of Scotland*, Edinburgh : Maclehose, Jackson & Co., 1924, pp. 368-371.

48) 1626년 대주교 스포티우드는 추밀원 의원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1635년에

정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그리하여 종교개혁 이래 국왕 편에 있던 귀족들도 등을 돌려 국왕과의 유대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III. 國民聖約派의 成立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스코틀랜드에 내재해 있던 많은 불안 요인들은 종교문제를 계기로 마침내 폭발하였다. 즉 1637년 7월 23일 성 자일(St. Giles)교회에서 로드의 기도서를 예배에 채택했을 때 스코틀랜드인의 영국에 대한 민족적 감정과 불만이 분출되었다. 에딘버러의 성 자일교회에서 영국 교회 의식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자 한 노파가 “카톨릭 미사가 우리 교회에까지 침투했구나!” 하고 외치면서 의자를 설교단을 향해 던져 교회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에딘버러의 이러한 소식이 스코틀랜드 전국에 전파되자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찰스 1세의 종교정책에 공개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은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국왕 찰스 1세에게 민족적으로 대항하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국민성약파의 형성과 국민저항이 바로 그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민성약은 스코틀랜드의 대영적 대감과 프로테스탄티즘이 결합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St.) 자일교회에서 소요가 발생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9월 20일, 기도서 철회를 요구하는 귀족, 바론, 목사 및 평민에 의한 공동청원과 68통의 청원서가 스코틀랜드의 추밀원에 제출되었다.<sup>49)</sup> 청원서에는 새로운 기도서에 대한 우려가 담겨져 있었다.

---

는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관의 지위는 종교개혁 이후 80년간 귀족들이 점유했기 때문에 스포티우드의 취임은 귀족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49) 찰스 1세는 부재 국왕으로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를 지배하였고, 추밀원은 국왕의 의사전달 기관이었다. 추밀원 의원 모두 기도서 사용을 지지했고 추밀원 자체는 국왕의 꼭두각시였다.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p. 31.

“... 이 새로운 기도서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어 국민들에게 강요되었으며 종교개혁 이후 수립된 종교와 예배의식에 반대되는 많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sup>50)</sup>

이와 같은 청원서가 수십 통 제출되었으나 찰스 1세의 반응은 극히 냉담했다. 그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에딘버러로 온 사람들에게 24시간 내에 그 도시를 떠나갈 것을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추밀원 회의를 기도서 반대운동의 중심지인 에딘버러에서 지방 도시인 글라스고우(Glasgow)와 던디(Dundee)로 옮겨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국왕의 완강한 포고문이 발표되자 9월에 추밀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던 청원자들 가운데 4명의 지도자, 즉 발메리노 경(Lord Balmerino), 라우돈 경(Lord Roudon), 딕스(David Dicks) 목사, 헨드슨(Alexander Henderson) 목사가 1637년 10월 18일 새로운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이 ‘기도서 반대 및 주교 고소를 위한 탄원서’(Supplication against the Service Book with a Complainte upon Bishops)에는 첫째, 진정한 종교, 즉 장로교 교리와 상충되는 내용이 담긴 기도서와 교회법을 작성한 주교들을 비난하고 둘째, 기도서 문제에 대해 그들이 재판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셋째, 주교들을 추밀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sup>51)</sup> 이 탄원서에 24명의 귀족, 200 - 300명의 젠트리, 글라스고우에서는 2명의 목사를 제외한 모든 목사들이 서명하였다.

1637년 10월 18일의 탄원서는, 다음 해에 작성된 국민성약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탄원서에는 첫째, 기도서 문제를 처음으로 법적 수단에 호소하였고 둘째, 기존의 교회법을 부인하고 셋째, 기도서 반대운동을 서명으로 나타내어 전 국민 행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기

50) G. Donaldson, *Scotland : James V - James VIII* Edinburgh : Olive & Boyd, 1965, p. 311.

51) Ibid.

때문이었다.

서명자들은 추밀원과의 회견에서 이 탄원서에 대한 해답일을 11월 15일로 정하고 추밀원과 교섭할 위원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각 주(province)마다 2명의 젠티리, 각 노회(presbytery)마다 1명의 목사, 각 자치도시(burgh)마다 1명의 위원, 그리고 6명의 귀족대표들이 선출되었다. 그래서 청원자들의 대표들이 탄원서를 국왕에게 제출하도록 추밀원에 요구하자 추밀원은 12월 21일 이들의 청원을 승인해 트라길 백작(Earl of Traquair)을 런던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트라길은 1638년 2월 15일 찰스 1세로부터 아무런 해답도 듣지 못한 채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이에 청원자들은 본격적으로 국왕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선출한 위원의 수가 많아 운동의 중핵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이들로부터 다시 소위원회를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2월 22일 4명의 바론, 4명의 자치도시 대표, 4명의 목사 및 참석 가능한 모든 귀족으로 이루어진 4계층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sup>52)</sup>

그들은 결속을 보다 합법화하고 또 국왕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최후의 수단, 즉 찰스 1세에게 저항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하여 1638년 2월 23일부터 2월 27일 사이 헨더슨과 존스턴이 공동으로 국왕에 대한 항의문을 작성하였다. 이 항의문에 로시스와 라우돈 및 발메리노 등의 귀족들이 약간의 수정을 했는데 이 수정된 문서가 바로 국민성약이었다.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국민성약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헨더슨이었다. 그러나 목사인 그가 작성한 초안은 급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신학적이었다. 그래서 1638년 2월 27일 로시스와 라우돈 등의 귀족과 신학자 베일리(Robert Baillie)

52) F. N. McCoy, *Robert Baillie and Second Scots Reformation*, London :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74, pp. 33-34. 이와같이 계층별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국회의 사당 내의 4개의 회의실에 있는 탁자에 앉아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 탁자 위에는 녹색 보가 덮혀져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녹색위원회(the Tables or the Green Tables)라고 한다.

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구의 수정과 삭제를 가하였다.

첫째, 종교제도와 퍼드시의 5개 신앙조례의 폐기문제였다. 베일리는 종교제도와 퍼드시 5개조에 규정된 예배의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라우돈이 초안한 문서를 보면 현재까지 실시해 온 관행(종교제도와 예배의식)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만약 라우돈의 주장을 따른다면 이 운동의 참가자들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베일리도 헨더슨의 초안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sup>53)</sup>

둘째, 국왕에 대항한 무장봉기 사항이다. 온건파인 베일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주장에 따라 무장봉기라는 말은 문서에서 삭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종교제도를 지지하는 일부 민중까지 포섭하기 위해 이 무장봉기라는 말을 삭제하였다.<sup>54)</sup>

드디어 1638년 2월 28일 로시스와 라우돈은 문서를 가지고 켄트리의 대표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 찾아가 연설을 하였다. 그는 “분열은 적이 채동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원자들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공동의 대의를 위해서 단결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퍼드시의 5개 신앙조항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다. 즉 법은 의회에서 폐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성약이 퍼드시의 5개 신앙조항의 효력을 과연 상실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때 로시스는 법의 이유가 상실되면 법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미신과 우상숭배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된 이상 그것을 규정한 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민은 그 실시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이 끝나고 표결에 부쳐진 결과 한 명을 제외한 대표 전원이 성약 초안에 찬성하였고 그 날 오후 2시 그레이페어(Grayfare)교회에 집결할 것을

53) Ibid., p. 37.

54) Mathieson, *Politics and Religion*, vol. I (1902), pp. 380-381.



결정하였다.

젠트리들이 교회 뜰에 집합하자 헨더슨 목사가 성약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라우돈이 귀족, 목사, 주 대표, 자치도시 대표들이 성약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또 이 성약은 신과 국왕의 영예에 상처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날 오후 4시, 귀족들이 참가하였다. 존스톤의 제안에 따라 성약문이 새겨져 있는 양피지에 각각 서명했다. 참가자 수가 많았으므로 서명은 밤 8시까지 진행되었다.

다음날 3월 2일에도 서명은 계속되었다. 에딘버러시에 모여 있던 목사 300여 명이 먼저 서명을 하고 오후에는 자치도시 대표들도 이에 참가하였다. 또한 성약문서를 복사하여 전국 각지에 발송하여 성찬식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명할 것과 만약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나 병자들은 2명의 공증인을 세워 서명하도록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3주만에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국민성약에 서명하였다.<sup>55)</sup>

이렇게 작성된 국민성약은 내용이나 어조에 있어서 급진적이었다.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영역이나 목적 또한 대단히 야심적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스코틀랜드 뿐만 아니라 영국과 아일랜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국민성약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을까? 국민성약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반카톨릭(Anti-Catholic) 둘째, 신교도의 규칙(pro-Protestant statutes) 셋째, 국왕에 대한 신민의 충성(Civic loyalty to the Crown) 넷째, 전체적인 결속(general band)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국민성약에는 1581년의 부정고해(Negative Confession)가 다시 확인되어 있다. 이것은 1581년 1월 제임스 1세가 레녹스 공(Duke of Rennox)의 제안에 따라 서명한 것이다. 이것은 왕이 카톨릭교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 내용은 진정한 종교는 복음 안에 계

55) 당시 스코틀랜드인의 몇 명이 정확하게 국민성약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문서는 없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명한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다.

사되는 것이므로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에 의해 선교되는 것을 인정하고 카톨릭 교회의 모든 의식을 부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부정고해의 내용은 국민성약의 제1부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고해가 신과 개인 사이의 성약을 의미하는 데 반해, 국민성약은 신과의 성약은 물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결속도 포함하고 있다.<sup>56)</sup> 즉 저항함에 있어서 국민의 결속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1633년 찰스 1세는 로드를 캔트베리 대주교로 임명해 영국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종교문제의 전권을 위임하였다. 이에 로드가 도입한 것이 바로 고교회(High Church)파라 일컬어지는 아르미니우스주의(Arminianism)였다.<sup>57)</sup>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르미니우스(Jacob Arminius)에 의해 확립된 이 신학은 칼빈주의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원죄와 하나님에 의한 죄사함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예정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거부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우주적으로 부여된다고 믿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면 구원은 선택된 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아르미니우스파의 교리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급진적 장로교도들에게 그것은 카톨릭과 동일시되었다. 아르미니우스파가 첫째, 예배의식과 형식을 중요시하고 둘째, 성직자의 위계를 강조하며 셋째, 교회가 일반 신도들에게 명령을 하였던 것이 그 이유였다.<sup>58)</sup>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는 선택된 자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체 책임을 강조했다. 이 특별한 관심은 30년전쟁 이후 야기된 정치적 제휴와 반개혁의 과정을 통해 강화되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1625년 프

56)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p. 86.

57) Margaret Steel, "The Politick Christian : The theological background to the National Covenant", (ed.), John Morrill,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p. 35.

58) Ibid., p. 37.

랑스 카톨릭교도인 마리아(Henrietta Maria)와 결혼을 하자 반카톨릭주의는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국민성약이 만들어질 때 반카톨릭주의가 반영된 것이다.<sup>59)</sup>

둘째, 국민성약은 신교도의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신교도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수호해야 하며 카톨릭이나 여타 다른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주교가 임명되는 17세기 교회에서 칼빈주의에 입각한 16세기의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가 복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0)</sup>

다음으로 국민성약은 국왕에 대한 신민의 충성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급진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상향이론(ascending theory)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는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즉 교황이나 성직자가 왕에게 대관함으로써 왕권이 성립된다는 하향이론(descending theory)과는 반대되는 이론으로,<sup>61)</sup> 왕의 권력을 뒷받침함에 있어 영국의 왕권을 프랑스의 왕권과 구별되게 하였다. 즉 신민의 추대에 의해 왕권이 주어지며 국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신민을 위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국민성약도 이러한 이론을 담고 있다. 국민성약의 서문에도 “국왕은 의회를 통치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는 찰스 1세에 대한 도전이었다. 국민성약에 의하면 국왕에 대한 신민의 충성은 왕이 어떻게 선한 정부를 만드는데 달려 있다. 국왕은 16세기의 스코틀랜드 교회를 수호하고 다른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어하는 하나님의 관리(godly magistrate)가 되어야만 신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62)

59) C. Hibbod, *Charles I and the Popish Plot*, Edinburgh : Newton Abbot, 1973, pp. 92-94.

60) Steel, “Politick Christian”, p. 40.

61) W. Ullmann, *Principles of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Middle Ages*, London : Matheun & Co, 1965, pp. 20-21.

세 번째의 내용은 끝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은 자연질서의 형상화였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이기에 국왕은 당연히 신앙을 수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sup>63)</sup> 그러나 당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찰스 1세는 그렇지 못했다. 신앙을 수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국민성약은 이러한 군주에 대항하는 전체적인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성약은 알투스우스(Johannes Althusius)의 「정치학 체계론」(*Politica Methodice Digesta*)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는 절대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왕의 권력과 교황권과의 투쟁이 야기되고 종교개혁으로 종교전쟁이 발발한 16-17세기 유럽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사상을 피력하였다. 알투스우스는 1603년 「정치학 체계론」에서 ‘공생’(symbiosis)을 기본 주제로 삼고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국민주권의 원리에 토대를 둔 연방체제를 지향하였다. 그의 사상은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성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sup>64)</sup>

알투스우스는 “억압적인 독재자를 폐위하기 전에 우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까지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5)</sup> 그리하여 찰스 1세를 정신차리게 할 목적으로 먼저 국민성약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계획으로 1643년 엄숙 동맹과 성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이 채택되게 되었다. 또한 알투스우스는 “만약 독재자가 신에 대한 경배를 모독하고 국가의 권리와 기초를 흔든다면 먼저 말로써 저항해야 하고, 그 어떤 방법도 성공하지 않을 때는 무력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하였다.<sup>66)</sup> 그러므로 국민성약은 무엇보다도 저항을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의무와 복종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62) Steel, “Politick Christon”, p. 42.

63) Morril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p. 11.

64) 알투스우스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趙源弘, “Johannes Althusius의 國家論과 法理論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1992. 8.

65) Cowan, “The Making of the National Covenant”, p. 80.

66) Ibid., p. 81.

그러면 성약자들이 「정치학 체계론」을 읽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프리드리히(Karl Friedrich)는 17세기 글 중에서 루더포드(Samuel Rutherford)의 「국왕의 법」(*Lex Rex*)이 알투지우스의 입장에 가장 가깝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핸더슨의 「신앙 수호를 위한 요강」(*Instructions for Defensive Arms*)에는 “국민이 왕을 만드나 왕은 국민을 만들지 못한다. 국민은 왕없이 존재할 수 있으나 왕은 국민없이 존재할 수 없다. 왕의 신체는 죽게 되어 있으나 하나의 사회로서의 국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정치학 체계론」 19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sup>67)</sup>

이와같이 국민성약은 형식, 내용, 그리고 어조에 있어서 엘리트들의 선언이었고<sup>68)</sup> 다른 탄원서보다 더 진보적인 사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면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국민성약에 서명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한 서명운동이다. 스코틀랜드인에게는 결속이라는 전통이 있었다. 성약이 참신앙의 표시라는 칼빈주의를 신봉한 스코틀랜드인들은 16세기 후반부터는 종교적 결속을 선호했다.

최초의 성약은 1556년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초안한 ‘던스의 성약’(Duns Covenant)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모든 미신, 혐오, 우상숭배나 로마 카톨릭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69)</sup> 던스의 성약 이후 소수의 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약에서부터<sup>70)</sup>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서명이 이루어진 성약이<sup>71)</sup> 스코틀랜드에 나타나게 되었다.

67) Ibid.

68) Steel, “Politick Christian”, p. 32.

69) McCoy, *Robert Baillie and the Second Scots Reformation*, p. 40.

70) 메리여왕(Mary of Guise)의 친 프랑스정책에 반대하여 1560년 4월 27일 리스(Leith)에서 귀족연맹(Lords of Congregation)이 초안한 ‘성약과 결속’(Contract and Band)을 들 수 있다. 여기에 Earl of Argyll and Glencairn and Morton, Lord of Lorne, John Erskine of Dun이 서명했다.

71) 1596년 데이비슨(John Davidson)이 목사들의 변절을 총회에 간청하자 약 400명의

그러나 국민성약은 이전의 종교적 결속과는 구별되었다. 서명을 한 사람의 수도 그러했지만 특히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서 급진적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뒷받침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대륙에서부터 퍼진 '성약신학'(Federal Theology)이었다. 1620년대의 중요 신학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성약신학은 국민성약의 특성을 결정지었다.

성약신학은 신과 인간 사이의 성약을 중요시했다. 이 성약신학에 의하면 국왕에 대한 충성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했다. 첫째, 국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 둘째, 국왕의 명령은 정당해야 한다. 끝으로 국왕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권력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복종이 보장되지 않는다.<sup>72)</sup>

이렇게 성약신학은 당시의 여건으로 보면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군주정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성약된 왕'(Covenanted King)을 강조한 것이었다. 국왕에 대한 충성은 왕이 법을 준수하고 신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 반역은 권력자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참종교와 왕의 의무인 보호와 방어를 할 사람으로 비쳐지지 않았던 것이다.

#### IV. 영국혁명에 미친 성약파의 영향

찰스 1세는 1629년 의회를 해산한 이후 11년간 종교문제는 로드에게, 정치문제는 스트라포드 백(Earl of Strafford)에게 의지하면서 자의적인 정치를 해 왔다. 1630년대에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갈등들이 존재해 있었다. 그것이 1630년대 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역사가였고 왕당파의 지도자였

---

목사들이 그들의 직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

72) Steel, "Politick Christian", pp. 54-55.

던 하이드(Edward Hyde)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러한 축복된 상황 하에서 ... 보일락말락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북쪽(스코틀랜드)에서 나타나, 금새 폭우를 동반하더니 마침내 3왕국의 동량 지재(棟樑之材)들을 모조리 뿌리채 뽑아 버리고 그들의 이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모두 파괴해 버렸으며 국력을 쇠퇴시키고 영광을 모멸의 대상으로 만들었다.”<sup>73)</sup>

그 ‘작은 구름’이 바로 국민성약이라 할 수 있다. 국민성약이 만들어지면서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하게 되었다. 또 영국혁명은 그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스코틀랜드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왕과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둘째, 국민성약과의 영국 의회 지원 셋째, 국민성약과의 국왕 지원 넷째, 크롬웰의 원정으로 스코틀랜드의 패배가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의 4단계를 살펴보면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게 되었고 개입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민성약이 하나의 정치적 체계를 갖추게 된 계기는 1638년 11월 21일에서 12월 20일 사이에 글라스고우에서 열린 종교회의였다. 많은 논란 끝에 주교제도를 폐지하고 성직자의 관직 보유를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정들은 찰스 1세의 국왕대권에 도전하는 두 번째의 사건이었다.<sup>74)</sup> 그 결과 국왕과 국민성약과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국민성약이 만들어짐으로써 귀족들은 보호자로, 그리고 젠트리들은 원로통치자(ruling elder)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에서는 더 이상 찰스 1세가 개인적인 통치(personal rule)를 할 수 없게 되었다.<sup>75)</sup>

73) Michel Gruber, *The English Revolution*, New York : Ardmore Press, 1967, p. 49.

74)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p. 125.

그러한 긴장 상황에서 국민성약파는 글라스고우 종교회의 이후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찰스 1세와의 전쟁에 대비하였는데, 그것이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로 나타났다. 1639년 1월 10일 아가일(Agaile)의 지지를 받은 녹탁위원회가 지방조직을 정비하게 되어 각 주와 교회구역별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종교적 기구가 아니라 평신도로 구성된 행정기구였다. 그것은 4명의 켄트리로 구성되어 직접 녹탁위원회와 연락하면서 지방행정기구(local executive)의 역할을 수행하였다.<sup>75)</sup> 지방위원회는 당시 당면한 문제, 즉 찰스 1세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첫째, 군대를 소집·무장·훈련시키고 둘째,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 토지나 상업활동의 이익금에 대한 세금 부과 셋째, 각 교구별로 위원회의 업무를 알리는 것 등이 그 주요 활동이었다.<sup>77)</sup>

이와같이 스코틀랜드의 국민성약파들이 중앙과 지방의 정부 조직을 정비하였다. 중앙의 녹탁위원회와 지방별 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몇 명의 행정위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을 통치하는 것으로, 과두적 중앙집권주의(oligarchic centralism)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두적 중앙집권주의는 스코틀랜드로 하여금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가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방 위원회는 징집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6 - 60세의 성년 남자를 징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주별로 보병 1연대와 기병단을 1연대씩 모집, 운영하였다. 이러한 편제와 더불어 스코틀랜드는 군대 지휘관이나 전술면에서 더욱 보강되었다. 특히 30년전쟁에서 신교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스웨덴 국왕 아돌푸스(Gustavus Adolfus) 휘하의 군대에서 육군 원수로 활약한 레슬리(Alexander Leslie)가 최고 사령관이 되면서 스코틀랜드군은 일대 전기를

75) A. I. Macinnes, "The Scottish Constitution, 1638 - 51 : The Rise and Fall of Oligarchic Centralism", (ed.), John Morrill,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on Its British Context*, p. 106.

76) Macinnes, "The Scottish Constitution", p. 113.

77) Ibid., p. 114.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국왕 찰스 1세도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글라스고우 종교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해밀턴은 찰스 1세에게 군사적 개입을 건의했다. 스트라포드와 로드도 이에 동의하였다. 국왕은 스트라포드 휘하의 아일랜드 군대의 동원이나 스페인 보병의 고용 가능성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관습법에는 국왕이 '평화' 시에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1639년 5월 찰스 1세는 군대를 소집하였다. 찰스 1세의 군대 소집은 1323년 이후 처음으로 의회의 동의없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금이나 그 규모에 있어서 스코틀랜드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1639년 5월, 이른바 제1차 주교전쟁(The First Bishop's War)이 발발하였다. 스코틀랜드 군대가 승리하였고 찰스 1세는 군사력으로 그의 뜻을 관철시킬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스코틀랜드인들도 국왕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국왕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하게 되었다.

그 해 6월 버윅성(Berwick Castle)에서 휴전이 조인되었다. 이 '버윅의 평화'(Pacification of Berwick)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군대를 해체하고 그들이 탈취한 국왕의 성들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종교회의를 다가올 8월에 열어 장로교 문제를 결정하고, 의회를 열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처음으로 그는 이 대표 집단들에게 정기적으로 회합할 권리를 부여하였다.<sup>78)</sup> 또한 국왕은 스코틀랜드에서 주교제도를 폐지하도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찰스 1세는 부왕의 금언인 “주교없이 국왕도 없다”(No bishop, no king)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찰스 1세에 있어서 평화조약은 스코틀랜드에 대해 그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모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수단에 불과했다. 이러한 힘의 필요라는 문제는 그 해

78)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p. 152.

나머지 기간 동안 국왕과 그의 측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아일랜드에서 귀환한 스트라포드는 찰스 1세에게 의회를 소집하도록 권하였다. 의회만이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해 8월 종교회의와 의회가 열렸다. 이것은 종교문제는 종교회의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의회에서 다루기로 한 ‘버워의 평화’에서 비롯하였다. 종교회의에서는 국민성약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신청서를 모든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였다. 또한 의회에서는 ‘3년 의회법’(Triennial Act)이 통과되었다.<sup>79)</sup> 이 법은 적어도 3년마다 한 번은 국왕의 동의와 상관없이 의회가 소집되어야 하며 국왕은 이 의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1603년 이래로 스코틀랜드의 국왕, 즉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의회를 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3년 의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의회는 국왕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의회 속의 국왕’(King in Parliament)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국왕 찰스 1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왕의 정책에 의해 피해를 본 영국의 소수 지주들은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지지를 약속하였다. 찰스 1세의 군대 내부에도 청교도적 인식이 사병들 사이에 전파되어 과연 찰스 1세의 군대가 스코틀랜드군과 싸울 것인가에 관해 심각한 회의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실에 고무된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1640년 8월 20일 트위드강(Tweed River)을 건너 영국의 북부로 진격하였다. 이른바 제2차 주교전쟁(The Second Bishop's War)이 발발한 것이다. 잘 훈련된 스코틀랜드 군대는 의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찰스 1세의 군대에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8월 30일 뉴카슬(Newcastle)을 점령하여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뉴카슬의 석탄이 런던의 시민들이 취사와 난방에 이용되

79)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p. 162.

어 뉴카슬의 점령은 찰스 1세에게 휴전을 하게끔 하는 큰 충격을 주었다.<sup>80)</sup>

전쟁에서 승리한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영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우선 스코틀랜드인들은 찰스 1세에게 군대 주둔 유지비로 하루에 850 파운드를 요구했다. 찰스 1세는 영국의 의회로부터 유지비의 승인을 얻기 위해 새로이 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640년 11월 3일에 처음으로 소집된 의회는 국왕에 대한 복수와 함께 광범위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 의회는 영국혁명의 원동력이었던 장기의회(Long Parliament)로서 1653년까지 존재하였다.

한편 13명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대표들은 1640년 11월 국왕과 협상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 그들은 전쟁배상문제와 스트라포드(Strafford)의 탄핵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8개 조항의 강화조건을 제시하였다.<sup>81)</sup> 1641년 8월 25일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조약문서에 정식으로 조인하였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향후 스코틀랜드의 성약파가 다시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게 하고, 스코틀랜드내의 왕당파를 중심으로 국왕의 세력을 모으려는 것이었다.<sup>82)</sup>

1641년 영국의 의회는 '3년 의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스코틀랜드인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기에 스코틀랜드인들은 국왕과의 협약이 의회에서 동의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은 의회의 회기가 왕에 의해 자의적으로 열리지 못하게끔 조처를 강구한 것이었다. 찰스 1세는 이제 의회없이 통치할 수 없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찰스 1세의 영국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파괴한 것이다.<sup>83)</sup>

영국 의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찰스 1세는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트라포드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일은 찰스 1세의 정치

80) Macinnes, "Scottish constitution", p. 122.

81)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pp. 216-217.

82) Ibid., p. 233.

83) Russell, *The Causes of the English Revolution*, p. 57.

적 영향력이나 권위에 많은 손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반란이라는 또 다른 사태를 야기했다.

당시 아일랜드인들은 스코틀랜드의 국민성약파의 성공에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카톨릭을 믿는 아일랜드인들로서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승리할 경우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트라포드가 재판을 받게 되자 아일랜드인들은 영국 의회의 잠정적인 지배를 염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내에서의 관용정책을 호소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아일랜드의 반란에 스코틀랜드인들이 참전하였다. 아일랜드의 울스트(Ulster)에는 장로교를 믿는 많은 스코틀랜드인이 있었다. 또한 스코틀랜드 서북쪽에 있던 게일족의 동요도 우려되었다. 그들과 아일랜드인들이 동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경우 국민성약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인은 그들의 종교적 열정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sup>84)</sup> 영국에 대한 반란을 그들이 진압하게 된 것이다.

찰스 1세도 스코틀랜드의 참전에 동의하였다. 그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아일랜드에 참전함으로써 국민성약파가 영국의 내부문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영국 의회의 여러 문제에 몰두할 시간을 얻고자 하였다. 영국 의회도 국민성약파가 아일랜드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찰스 1세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아일랜드에 파병을 하게 되면 국왕은 새로운 세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력의 등장을 의회는 원하지 않았다.

국왕과 의회파는 계속 세력 강화에 몰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전열이 갖추어진 스코틀랜드 군대는 중요한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스코틀랜드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의회파들은 1642년 봄과 여름 동안 국왕과 협상하기보다

---

84)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p. 294.

는 스코틀랜드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 찰스 1세도 1641년 8월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였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인들이 영국 의회와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쪽은 협상보다는 오히려 스코틀랜드의 도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642년 국왕 찰스 1세는 의회와의 협상보다 그들을 군사적으로 물리칠 것을 선택하였다. 의회의 요구에 의해 스트라포드를 사형했지만 근본적으로 왕권신수설을 옹호하는 그와 의회와의 협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642년 국왕은 노팅엄(Nottingham)에서 군사행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제1차 영국내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sup>85)</sup> 전쟁 초기에 양측의 세력은 비등하였다. 국왕은 자신의 조카인 루퍼트(Prince Rupert)를, 의회파는 필립 스킵폰(Phillip Skippon)을 각기 지휘관으로 내세웠으나 어느 측도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1642년 겨울, 국왕과 루퍼트는 런던에 대한 세 갈래의 진격계획을 세웠다. 즉 랄프 홉튼 경(Lord of Ralph Hopton)은 콘월 출신의 소집군대를 동쪽으로 파견하여 아래로부터 수도를 공격하고, 뉴카슬 백작(Earl of Newcastle)은 윈코트 군대를 요크주로 진격하여 위로부터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루퍼트는 에섹스 군대를 테임즈 계곡 내에서 호된 일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1643년 봄과 여름에 실행되어 의회군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지도자들은 스코틀랜드에 원군을 찾았다. 영국 의회는 스코틀랜드와 군사적 동맹을 원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영국 교회를 개혁하여 자신들의 교회와 일치시킴으로써 영국 의회와 더욱 밀접하게 동맹을 맺기를 원했다. 영국인들은 주로 정치적인 동맹을, 스코틀랜드인들은 종교적 동맹을 강조했다.<sup>86)</sup>

그리하여 1643년 8월 17일 에딘버러에서 엄숙 동맹과 성약의 원안이 작

85) Gruber, *English Revolution*, p. 80.

86) W. Noteste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f Both Kingdom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x vii, 1912, pp. 479-480.

성되고 9월 25일 총회와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영국의 베인 경(Sir Henry Vane)이 서명했고 또 의회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20,000명의 군인들에게 하루 30,000파운드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국민성약파가 영국 의회를 지원함에 있어 그 바탕이 된 엄숙 동맹과 성약의 내용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규율이나 조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된 스코틀랜드 교회를 보존하고, 영국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카톨릭교, 기도서, 우상숭배, 이교, 교회분파, 이단 그리고 두 왕국에서의 국왕의 의지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근절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양 왕국의 의회의 권리와 특권, 양국의 자유를 보존하고 진정한 종교를 지키기 위해 왕 자신과 권위를 보존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종교개혁을 방해하거나 국왕과 신민을 분리시키거나 두 왕국을 분리하는 모든 시도를 엄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641년의 평화조약을 전적으로 지킬 것과 엄숙 동맹과 성약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을 돕고 지킬 것을 맹세했다.<sup>87)</sup>

1643년 11월에 양국 간의 군사동맹이 체결되어, 1644년 레슬리 장군의 지휘하에 18,000명의 보병과 2,000명의 기병이 의회파 군대를 지원하여 요크주의 마스톤 무어(Marston Moor)전투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전투는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지휘하에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성공은 국왕과의 전쟁에서 스코틀랜드 군대의 역할에 회의를 가져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엄숙 동맹과 성약의 이행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마스톤 무어 전투 이후 크롬웰의 신형군(New Model Army)이 찰스 1세와의 전쟁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1646년 5월 왕당파는 항복했다. 그 때 국왕은 스코틀랜드 군대로 피신을 하였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찰스 1세를 뉴카슬로 데리고 가 장로교 신학자들이 설득하게 하였다. 또한 의회도 찰스 1세를 설득하였다. 의회는 찰

---

87)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p. 285.

스 1세에게 왕권의 외형적 위엄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그 보답으로 의회의 지배권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찰스 1세는 여러 달 동안 양다리 걸치기 협상을 하였다. 스코틀랜드인들은 그의 시간 연기를 참을 수 없었고 영국 의회가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전쟁 중 미지불한 보수의 대부분을 지불하자 찰스 1세를 의회 측에 넘겨주었다.

1646년 말 스코틀랜드군이 찰스 1세를 영국 의회에 넘겨줌으로써 제1차 영국내란은 끝이 났다. 그러나 의회는 크롬웰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지 않았고 승리한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왕과 독자적으로 협상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의회와 군대사이에 파벌이 생기게 되었다. 의회의 장로파 의원들은 엄숙 동맹과 성약에 의해 국민성약을 영국에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회와 군대의 독립파들은 장로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데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찰스 1세는 1647년 11월 11일 햄프톤 코트(Hampton Court)에서 화이트(Whight)섬의 카리스부르크(Carisbrooke) 성으로 옮겨 유폐되었다. 그 곳에서 그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영국과 반목이 있어 온 스코틀랜드인들의 영국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하면서 비밀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12월 28일 ‘왕약’(Engagement)이라 불린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내용은 스코틀랜드는 국왕에게 혁명 이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국왕의 이름으로 영국에 지원군을 파견하는 대신, 그 보답으로 장로교를 3년 동안 영국에서 실시하고 독립파를 억압한다는 것이었다. 또 영국 의회가 장로교를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을 지라도 장로 교회를 영국에 확립한다는 것이다.<sup>88)</sup> 스코틀랜드로서는 장로교의 전파가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에 의회파 대신 국왕을 지원하게 되었다.

국왕 찰스 1세와의 밀약이 있자 스코틀랜드 국민성약파는 양분되었다. 즉, 왕약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스코틀랜드 귀족으로 구성된 왕약파

88) Austin Woolrych, *Battles of the English Civil War*, London : Pimlico, 1991, p. 150.

(Engager)와 성약파로 나누어진 것이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아가일을 중심으로 한 성약파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들은 성약에 동의하지 않은 국왕을 위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왕약파는 별도의 군대를 모아야 했다.

이 왕약은 찰스 1세가 그의 신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무능의 결과였다. 비록 왕당파의 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대의정부(議政府)사상에 젖어 있었다. 그 결과 하원은 불응대법안(Bills of No Addresses)을 표결하여 국왕에게 더 이상 어떠한 제안이나 대응도 하지 않고 그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의회내의 장로파조차 국왕에게 저항했다. 또 군대도 단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웨일즈에서는 국왕 찰스 1세를 위한 군사행동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제2차 영국내란이 발발한 것이다. 다시 정비된 크롬웰의 군대와, 찰스 1세와의 밀약을 두고 양분된 스코틀랜드 군대와와의 1648년 8월 프레스턴(Preston) 전투는 크롬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찰스 1세의 마지막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1649년 1월 30일 찰스 1세는 처형되었다. 왕의 처형은 모든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영국인들은 영국의 왕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왕도 처형했던 것이다. 1649년 2월 5일 스코틀랜드인들은 찰스 1세의 아들을 국왕이라고 선언했다. 찰스 2세는 계속 장로교를 승인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승인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였다. 한편 1649년 8월 크롬웰은 아일랜드 원정을 나갔다. 그러나 1650년 찰스 2세가 스콘에서 대관하자 그는 귀국하여 다시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1651년 여름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패배하였고 찰스 2세도 유럽으로 망명하였다. 이로써 장로교를 전파하려는 스코틀랜드의 희망은 좌절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코틀랜드인들은 영국혁명이 발발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개입하였다. 그러면서 장로교의 승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만약 찰스 1세가 장로교를 승인했을 경우에는 혁명의 추이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져왔을 것이다.<sup>89)</sup> 그들의 왕이 더 이상 수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전통과 독립이 유지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조직이나 내용을 영국 교회와 같이할 경우 그것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완전히 통합된다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장로교를 수호할 수 있는가에 따라 지지하는 대상을 달리했다. 경우에 따라 국왕 혹은 의회를 지지한 것이다. 혁명의 발발과 초기 상황에서는 스코틀랜드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크롬웰이 세력을 장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예전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음은 물론 크롬웰의 군대에 패배하게 된 것이다.

## V. 맺음말

이제까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영국혁명에 미친 영향을 국민성약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들의 답을 적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국민성약파가 형성된 배경으로는 복합왕국의 여러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복합왕국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유지·보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다른 왕국, 즉 영국에 있는 한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은 불식될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코틀랜드를 '당신들의 국가'라 칭할 정도로 그 곳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찰스 1세의 정책들은 많은 반발을 가져왔다.

그러한 반발이 야기되는 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찰스 1세의 종교정책이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즉 장로교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장로교와 반대되는 카톨릭적인 영국 국교회이므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89) Russell, *The Causes of English Civil War*, p. 9.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인들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국왕 찰스 1세에게 민족적으로 대항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성약파가 형성되고 국민저항이 나타났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대영 적대감과 프로테스탄티즘의 결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국민성약이 만들어지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하나의 정치세력인 녹탁위 원회가 나타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국왕에게 청원을 했지만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점차 국왕에게 대항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추밀원은 무력화되었으며 대신 과도적 중앙집권 정부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약파들이 중앙과 지방을 통치하게 되었다.

국민성약이 만들어지면서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하였다. 또한 영국혁명에 그 발생과 추이에 있어서 스코틀랜드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한 과정은 대체로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첫째, 국왕과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영국혁명 발발) 둘째, 국민성약파의 영국 의회와의 동맹(의회파의 승리와 왕당파 패배) 셋째, 국민성약파의 국왕 지원(제2차 내란) 넷째, 크롬웰의 원정으로 인한 스코틀랜드의 패배가 그것이다.

첫째 단계는 국왕과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이다. 스코틀랜드에서 국민성약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치세력화되자 국왕은 이를 진압하려 하였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민성약파는 새로이 정치조직을 정비하여 국왕 찰스 1세에게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 그들이 영국의 내정에 간여하게 되었다.

다음은 국민성약파가 영국 의회를 지원하는 단계이다.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국민성약파가 영국의 의회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한 계기는 엄숙 동맹과 성약이었다.

셋째로는 국민성약파가 국왕 찰스 1세를 지원하는 단계이다. 국민성약파는 의회를 지원하여 국왕과의 전쟁에서 크롬웰의 신행군으로 하여금 마스트론 무어 대첩을 올리게 하였으나, 그 후 의회파가 스코틀랜드군의 간섭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스코틀랜드와 맺은 엄숙 동맹과 성약을

준수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성약파는 방향을 돌려 카리스부르크성에 유폐되어 있는 찰스 1세와 밀약하여 그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2차 내란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스코틀랜드의 패배 단계이다. 제2차 내란에서 왕당파와 스코틀랜드군이 대패하자 스코틀랜드는 찰스 1세 처형 후 그의 아들(찰스 2세)을 국왕으로 추대하여 성약에 서명케 함으로써 다시 의회파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이 저항은 1651년 크롬웰의 원정으로 스코틀랜드의 패배로 끝나고 영국혁명도 일단 종결되었다.

이와같이 스코틀랜드는 영국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장로교 전파라는 일관된 목적하에서 동맹 대상을 의회파 또는 왕당파를 선택했다. 초기에는 영국 의회를, 후에는 국왕 찰스 1세를 지원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누가 그들의 장로교를 수호하고 확립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렇게 볼 때 영국혁명은 그 발발이나 추이에 있어서 장로교를 수호하고자 하는 스코틀랜드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종교적 특성을 지닌 복합왕국이라는 전영국적 상황이나 영국 외부로부터의 간여와 충격의 영향을 도외시하고 오직 영국내의 의회파와 왕당파의 투쟁이라는 종래의 관점만으로는 영국혁명을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Books*

- Calderwood, David, *History of the Kirk of Scotland*, 5 vols, (ed.), Thomas Thomson, Edinburgh : Wodrow Society, 1842 - 1849.
- Campbell, William M., *The Triumph of Presbyterianism*, Edinburgh : The Saint Andrew Press, 1958.
- Cowan, I. B., *The Scottish Covenanters*, London : Longman, 1976.
- Davies, Godfrey, *The Early Stuarts 1603 - 1660*, Oxford : Clarendon Press, 1959.
- Donaldson, Gordon, *The Making of the Scottish Prayer Book of 1637*,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54.
- , *Scottish Reforma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 *Scotland James V - James VII* Edinburgh ; Oliver & Boyd, 1965.
- Duglas, J. D., *Light in the North*, England : Paternoster Press, 1964.
- Ferguson, W., *Scotland's Relation with England : A Survey to 1707*,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77.
- Foster, W. R., *The Church Before the Covenanters*, Edinburgh : John Donald Press, 1975.
- Galloway, Bruce, *The Union of England and Scotland 1603 - 1608*, Edinburgh : John Donald Press, 1986.
- Gardiner, S. R., *The Constitutional Documents of the Puritan 1625 - 1660*, Oxford : Clarendon Press, 1905.
- Gruber, Michael, *The English Revolution*, New York : Ardmore Press, 1967.

- Hewison, J. K., *The Covenanters, A History of the Church of Scotland from the Reformation to the Revolution*, 2 vols, Glasgow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13.
- Hibbod, C., *Charles I and the Popish Plot*, Edinburgh : Newton Abbot, 1973.
- Houston, S. J., *James I*, London : Longman, 1973.
- Lane, J., *The Reign of King Covenant*, London : Longman, 1956.
- Lee, Maurice., *The Road to Revolution : Scotland Under Charles I 1625 - 1637*, New York :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5.
- Levack, B. P., *The Formation of the British State : England, Scotland and Union 1603 -1707*, Oxford : Clarendon Press, 1987.
- Lynch, Michael., *Scotland*, London : Pimlico , 1991.
- Lythe, S. G. E., *The Economy of Scotland in it's European setting 1550 - 1625*, Edinburgh :Oliver & Boyd, 1960.
- Macinnes, A. I., *Charles I and the Making of the Covenanting Movement 1625 -1641*, Edinburgh : John Donald Press, 1991.
- Mathieson, W. L., *Politics and Religion : A Study of Scottish History from the Reformation to the Revolution*, 2 vols, Glasgow : James Maclehose & Sons, 1902.
- Mathew, D., *Scotland under Charles I*, London : Eyre & Spottiswoode Ltd, 1965.
- McCoy, F. N., *Robert Baillie and the Second Scots Reformation*, London :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74.
- Morrill, John,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 Rait, R. S., *The Parliament of Scotland*, Edinburgh : Maclehose, Jackson & Co, 1924.
- Reid, W. Stanford, *Trumpeter of God : A Biography of John Knox*, New

-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74.
- Richardson, R. C., *The Debate on the English Revolution Revisited*,  
London: Routledge, 1991.
- Russell, Conard, *The Origins of the English Civil War*, London: Macmillan  
Press, 1973.
- , *The Causes of the English Civil War*, Oxford : Clarendon Press,  
1990.
- Stevenson, David, *The Scottish Revolution 1637 - 1644*, Newton Abbot :  
David & Charles, 1973.
- Walter Ullmann, *Principles of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Middle Ages*,  
London : Methew & Co, 1961.
- Woolrych, Austin, *Battles of the English Civil War*, London: Pimlico, 1991.
- 吳主煥 外 共著, 「革命, 思想, 社會變動」, 大邱 : 慶北大 出版部, 1992.
- 洪致模, 「宗教改革史」, 서울 : 성광문화사, 1977.
- ,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91.

### Articles

- Brown, Keith M., "Aristocratic Finances and the Origins of the Scottish Revolution", *English Historical Review*, 1989.
- Cowan, Edward J., "The Making of the National Covenant", (ed.), John Morrill,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 Kaplan, L., "Presbyterians and Independents in 1643",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x x x iv, 1969.
- Jago, C., "The Crisis of the Aristocracy in Seventeenth - Century Castile", *Past and Present*, Vol. I x x x iv, 1979.
- Macinnes, Allan I., "The Scottish Constitution, 1638 - 51 : The rise and fall of Oligarchic Centralism" (ed.), John Morrill,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 Morrill, John, "The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ed.), John Morrill,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 Notestein, W.,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f Both Kingdom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x vii, 1912.
- Russell, Conard, "The British Problem and the English Civil War", *History*, Vol. I x x ii, 1987.
- Steele, Margaret, "The Politick Christian : The theological background to the National Covenant" in John Morrill(ed.), *The Scottish National Covenant in Its British Context*,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 Trevor - Roper, "Scotland and the Puritan Revolution" in Trevor - Roper (ed), *Religion, the Reformation and Social Change*, London, 1967.
- Wedgwood, C. W., "The Covenanters in the First Civil War", *Scottish*

*Historical Review*. Vol. x x iv, 1960.

Wormald, J. M., "Bloodfeud, Kindred and Government in Early Modern Scotland", *Past and Present*, Vol. I x x x vii, 1980.

吉玄謨, "初期 스튜어트王政의 財政的 破綻에 관한 考察", 「김성근박사 환갑 기념 西洋史 論叢」, 교육출판사, 1969.

羅鍾一, "英國革命의 한 視角 - 英國革命의 기원과 성격에 관하여 -", 「西洋史論」 제33호, 1989.

趙源弘, "Johannes Althusius의 國家論과 法理論 研究", 「서울대학교 문학 박사 학위논문」, 1992, 8.

吳主煥, "英國革命史 研究의 實相", 「慶北史學」, 제5집, 1982.

-----, "英國革命史觀의 變遷", 吳主煥 外 共著 「革命, 思想, 社會變動」, 慶北大 出版部, 1992.

洪致模, "James VI세의 종교정책", 「민석홍교수 회갑기념 논문」, 삼영사, 1985.

-----, "스코틀랜드와 淸教徒革命", 「신학지남」, 제44권 1집, 1977.